

한국 루터교회 평신도의 교회인식과 기독교 상담

Church's Cognition and Christian Counseling in Luther's Church in Korea

김옥진

루터대학교 상담심리학과

Ock-Jin Kim(ojkim@ltu.ac.kr)

요약

본 연구는 한국 루터교회 내의 평신도 의식과 신앙성숙을 위한 기독교 상담, 교회 내 프로그램의 영향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교회성장요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대상은 한국 루터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00교회에 출석하는 평신도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총 83부의 설문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도구로는 한국교회성장연구소의 교회건강 진단을 위한 NCD 평신도 설문지를 사용하였으며 신뢰도 Cronbach's α 는 0.91 이었다. 종속변수에 해당하는 교회발전과 성장은 교회발전 성장, 교회발전 목표, 교회발전 조직으로 측정하였고, 독립변수인 교회프로그램과 기독교상담에 대해서는 지도자, 의례, 공동체, 사역/프로그램, 개인적 믿음/가치관으로 측정하였다. 회수된 설문은 교회발전과 성장과의 상관성을 검증 위해 상관성 검증을 실시하였고, 교회발전과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볼 때 상담을 포함한 교회 내 사역·프로그램, 교우와의 관계, 공동체 활동 및 상호소통 등이 영적성장 및 자기성장과 높은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지속적인 교회성장을 위해서는 상담사역을 중심으로 한 교회 내 공동체 프로그램의 중요성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 중심어 : | 한국 루터교회 | 신앙성숙 | 교회프로그램 | 기독교 상담 | 공동체 |

Abstract

This study was designed to analyze the impact of Christian counseling for the common faith and religious wellbeing within the Korean Luther Church, and to provide church growth factors based on the results. The study target was based on the survey results of a total of 83 members who were attending layman in the 000 church, which is affiliated with the Korean Lutheran Church. The research tool used NCD questionnaire for church health diagnosis by the Korea Church Growth Institute for the church growth model and the reliability of Cronbach's α in this study was 0.91. The collected questionnaire was tested for correlation to verify the relationship between church development and growth, and for multiple recursive analysis to confirm factors affecting church development and growth. The results showed that church's services, programs, and atmosphere were highly correlated with development of church, including counseling. The research showed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church services, programs, and friends, including counseling, was highly correlated with spiritual growth and self-growth, while community activities and mutual communication were low. Therefore, for continuous church growth, the importance of community programs in the church is considered necessary.

■ keyword : | Korean Luther Church | Religious Maturity | Church Program | Christian Counseling | Community |

* 본 논문은 2018년도 루터대학교 교내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수행된 것임

접수일자 : 2018년 09월 07일

심사완료일 : 2018년 10월 19일

수정일자 : 2018년 10월 10일

교신저자 : 김옥진, e-mail : ojkim@ltu.ac.kr

1. 서론

한국교회가 오랜 기간을 걸쳐 폭발적으로 증가한 적이 있으나 현재 한국교회의 성도수는 크게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무엇보다 기독교의 교세가 눈에 띄게 약해지고 있으며 사회적 영향력 또한 날이 갈수록 약화되고 있다[1]. 아울러 교회내 성도들이 교회를 향한 기대와 욕구 또한 변화되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교회발전을 위해 성도들이 가장 크게 기대하는 것은 무엇일까?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종교개혁은 중세 로마 카톨릭 교회의 형식주의에 반대하여 교회의 본질이 외형적 건물 자체나 교회의 조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교회 안에 존재하는 성도의 교통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즉 교회는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화 되고 그를 머리로 하여 그 안에서 연합된 자들의 모임이라고 말할 수 있다[2].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반드시 발전되고 성장을 이루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교회 성장은 두 가지 관점에서 일컬어진다. 하나는 선교적 관점에서 교인 수가 증가하는 양적 성장이고, 또 하나는 기존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들의 질적인 신앙적 성숙이다. 진정한 교회 성장은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맥가브란은 교회성장은 하나님에 대한 교회의 성실성이며, 하나님은 교회 성장을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고 말씀으로써, 교회 성장은 교회의 필요성에 우선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속한 것임을 제시한다[3]. 피터 와그너는 교회성장에 대하여 예수그리스도와 개인적인 관계에 들어와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여 그들로 하여금 예수그리스도와의 사귀이 있게 하고 책임 있는 교회 구성원이 되도록 인도하는 것이라고 말한다[4].

그런 측면에서 교회의 올바른 성장이란 예수그리스도가 위탁한 선교적 사명을 실천하여 세상 속에서 잃은 양을 찾아내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잘 자라게 하는 것이다. 그것은 곧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훌륭한 제자가 되게 하여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스스로는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끔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5].

초대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는 교회성장의 모범이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 잘 나타나 있는 사도행전 2:47의 기록을 보면,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라고 나타난다. 즉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세례를 받은 후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렸으며, 서로 간에 깊은 친교가 이루어져서 물건을 서로 통용하기까지 하였고, 그 결과 교회는 계속 성장하였고 때에 따라서는 3천 명이 더하여지기도 하는 등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이러한 초대교회의 모습은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질적인 성장이 이루어질 때, 그 영향으로 자연스럽게 양적인 성장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음을 가르쳐준다.

실제적으로 기독교회에서 모든 중요한 성령의 부흥운동은 소그룹의 부활과 성경공부, 기도, 신앙 토의를 위해 개인의 집에서 모인 그룹들의 확장을 중심으로 성취되어져 왔다. 즉 교회 내에서 성도들의 교제와 신앙 성숙은 교회성장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된다[6].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성장원리에 대하여 에베소서 4장 15절-16절에서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하여 교회의 성장을 위한 원리는 다음과 같다. 첫째는, 교인들이 잘못된 모습을 돌이키고 예배와 교육등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한다. 이를 위해 예배때 행해지는 목회자의 설교는 교회성장의 열쇠와 같다. 설교가 성령이 교회들에게 선포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볼 때, 설교는 교회의 성장에 생명과 능력의 토대가 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설교가 아니면 교회의 질적성장은 기대하기 어렵다[7].

둘째는,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교인 상호간에 서로 돕고 성장해 가도록 돕는 것이다. 고대 철학자 아리스

토텔레스는 인간이 가족과 사회의 공동체 일원으로 살아가야만 인간답게 살 수 있음을 말하면서 인간을 사회적 동물이라고 여겼다[8].

개인은 공동체에 속함과 활동을 통하여 스스로의 자아를 확인하고 규정하며, 자신이 원하는 자아실현을 도모하고, 공동체 내 여러 활동 등을 통하여 성취한 자기 발전 속에서 자유를 찾으며, 합의된 헌신으로 뭉쳐진 전통을 존중하고 따르게 된다[9]. 공동체는 가장 자연스럽게 고상한 인간 삶의 형태이며 인간의 기본적 필요이기에 이러한 필요가 충족되지 못하면 소외, 중독, 범죄, 가정불화 등이 초래될 수 있다[10].

현대사회는 이기적 개인주의로 서로가 상처받고 있으며 이웃이 서로에게 방어의 울타리가 되어 주지 못하고 도리어 서로 간에 경계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므로 현대의 인간은 공동체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고 상호 간에 바탕으로 한 삶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를 그리워하게 된다[11]. 존재 지향적 사랑은 한 인간이 다른 한 인간을 인격적 존재로 대우하는 행위이다[12]. 그런 의미에서 교회의 영적지도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이 아니라, 공동체적 책임감도 가져야 한다.

교회의 공동체를 이루는 중요한 원리인 소그룹의 중요성에 대해 'Group Life'라는 용어로 설명한다. 'Group Life'는 서로 함께 하는 모습(a Drawing of Believers Together), 하나로 연합하면서 공유되어지는 느낌(a Shared Sense of Identity as a Body), 연합한 다른 이들에 대한 깊은 사랑과 헌신(a Deep Love for and Commitment to Each Other)을 바탕으로 한 공동체적 삶을 의미한다[13]. 이를 위해 목회자와 기독교 상담자는 기독교 상담의 방법론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14].

교회 공동체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4가지 리더십의 요소가 있다. 첫째로, 교회 공동체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자신의 은사를 찾아 은사대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양육하고 세우는 일이다. 둘째로, 성도들이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들의 소중함을 알아가게 도와야 한다. 셋째로, 공동체의 목적과 정신에 맞게 사람들이 하나의 마음으로 연합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넷째로, 사람들이 공동체의 비전과 사명을 위해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은사를 갖고 헌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15].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교회 공동체 형성이 기반이 되어야 한다.

본 연구주제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보면 기독교인의 교회스포츠프로그램 참여 만족도가 교회성장에 기여도, 활용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16], 교회의 노인대상 교육프로그램이 노인들의 신앙성숙에 효율적이었고[17], 지역을 위한 교회교육프로그램이 지역과 상생하는 교회성장에 이루었으며[18], 교회의 상담목회 프로그램이 교회성장에 효과적인 것이었으며[19], 효율적인 전도전략에 있어서 교회의 소그룹 공동체가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20]. 즉 교회 안에 상담실등과 같은 나눔과 치유를 위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하여 크리스천의 갈등과 고민에 대해 전문 기독교 상담사가 도움을 제공할 때에 교회를 떠나는 성도가 줄어들고, 내면이 치유되며, 인격성숙과 함께 영적성숙이 도모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21].

그러나 위의 선행연구들은 교회내 특정 상담프로그램 및 교회프로그램에 대한 교회만족도에 따른 연구에 그친 한계점이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루터교회라는 특정 교회집단에 소속된 평신도들의 교회인식에 있어서 기독교상담 및 교회프로그램의 역할을 알아보고자 한다.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모든 프로그램에는 교인 간에 서로 영향력을 주고받는 상호작용이 있어야 하며, 수용성과 공감력이 향상되어야 하고 그로 인해 성도들은 교회에 대한 소속감과 더불어 신앙성숙이 이루어질 것이다. 여기에 교회에서 상담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 및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제기되며, 그럴 때 교회는 세속에 존재하나, 거룩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담당하는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된 모습으로 성장되고 발전되어질 것이다.

II. 연구방법

본 연구는 한국 루터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00교회의 평신도를 대상으로 교회 건강진단과 신앙성숙을 위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사]교회성장연구소 교회경쟁

력연구센터>에서 개발한 ‘교회건강 진단을 위한 NCD 평신도 설문지’를 사용하여 2016년 7월 10에 실시하였으며, 설문지는 총 100부를 배부하여 84부를 수거하였고, 무응답 설문지 및 불성실하게 응답한 설문지를 제외하고 최종 83부를 교회발전 진단과 신앙성숙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사 분석에 사용하였다.

종속변수인 교회발전과 관련되어서는 교회발전 성장, 교회발전 목표, 교회발전 조직에 대한 설문을 통해 측정하였고, 독립변수인 교회프로그램과 상담에 대한 측정과 관련해서는 교회지도자, 교회예배, 공동체 참여, 사역/프로그램, 개인적 믿음/가치관에 대한 설문을 통해 측정하였다. 변수의 처리는 문항을 단순 합계하여 총점을 내어 각 하나의 합성변수를 만들어서 평균을 내어 분석에 사용하였으며 부정문으로 응답한 문항에 대해서는 역 코딩하여 처리하였다. 각 설문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여 ‘매우 크게 1점’, ‘크게 2점’, ‘보통 3점’, ‘겨우 4점’, ‘전혀 5점’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자료처리는 SPSS 21.0 통계패키지를 이용하였다. 분석내용은 첫째, 빈도분석을 통하여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둘째, 관련변수들의 정규성 검증을 위하여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셋째, 내적 일관성을 평가하기 위해 신뢰도분석을 하였다. 넷째, 교회발전과 성장과의 상관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각 변수들 간의 상관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다섯째, 교회발전과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으며, 성별은 남성이 38명(45.8%), 여성이 42명(50.6%)이었다. ‘한 주일에 같은 교회 사람과 보내는 시간’에 대해서는 ‘한 시간 이하’가 33명(39.8%), ‘1시간-2시간’은 18명(21.7%)이었다. ‘지난 두 달간 교회 사람과 차를 나누고 초대 받은 적은 있는가?’의 경우는 ‘한 번도 없음’이 34명(41.0%),

‘2-3번’이 24명(28.9%), ‘한번’은 16명(19.3%)로 나타났다. ‘지난 두 달간 교회 사람을 초대한 적이 있는가?’라는 문항에 대해서는 ‘한 번도 없음’이 50명(60.2%), ‘한번’ 또는 ‘2-3번’은 각 13명(15.7%)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인들 간에 교제가 많지 않음을 보여준다.

‘총수입의 몇%를 헌금하나?’에 대한 문항은 ‘10% 이상’으로 응답한 응답자가 20명(24.1%)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가까운 교회식구는 몇 명인가?’라는 문항에 대해서는 ‘3-5명’이 29명(34.9%), ‘6-10명’이 17명(20.5%)으로 나타났다. ‘크리스찬이 된 지 몇 년인가?’에 대한 문항은 ‘30년 이상’이 40명(48.2%), ‘11년-20년’이 24명(28.9%)순 이었다. ‘친구 중 믿지 않는 사람은 몇 명’에 대해서는 ‘3-5명’이 24명(28.9%), ‘11-20명’이 13명(15.7%)순으로 나타났다. ‘매일 대략 기도시간’에 대해서는 ‘10분미만’이 35명(42.2%), ‘10분-20분’이 24명(28.9%)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빈도분석결과를 해석해보면, 교우들 간의 친교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많지 않고, 크리스찬이 된 기간이 30년 이상이 응답자의 48.2%로, 교회가 고령화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친구들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잠재적 전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십일조나 신앙생활 기간에 비해 매일의 기도시간이 짧은 것이 주목된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구 분 | | N | % |
|------------------------------|---------------|-----|------|
| 성별 | 남자 | 38 | 45.8 |
| | 여자 | 42 | 50.6 |
| | 무응답 | 3 | 3.6 |
| 한 주일에 같은 교회 사람과 보내는 시간 | 한시간 이하 | 33 | 39.8 |
| | 1-2시간 이하 | 18 | 21.7 |
| | 2시간 초과-3시간 이하 | 7 | 8.4 |
| | 3시간 초과-5시간 이하 | 16 | 19.3 |
| | 5시간 이상 | 6 | 7.2 |
| 무응답 | 3 | 3.6 | |
| 지난 두 달 교회 사람과 차를 나누고 초대 받은 적 | 한번도 없음 | 34 | 41.0 |
| | 한번 | 16 | 19.3 |
| | 2-3번 | 24 | 28.9 |
| | 4-5번미만 | 3 | 3.6 |
| | 5번이상 | 3 | 3.6 |
| | 무응답 | 3 | 3.6 |

| | | |
|--------------------|------------|---------|
| | | |
| 지난 두 달 교회 사람 초대한 적 | 한번도 없음 | 50 60.2 |
| | 한 번 | 13 15.7 |
| | 2-3번 | 13 15.7 |
| | 4-5번 | 5 6.0 |
| | 5번 이상 | 1 1.2 |
| | | |
| 총 수입 몇%를 현금하나 | 무응답 | 1 1.2 |
| | 1%미만 | 15 18.1 |
| | 1-4% | 12 14.5 |
| | 약 5% | 12 14.5 |
| | 6-9% | 7 8.4 |
| | 10% | 14 16.9 |
| 가까운 교회 식구는 몇 명인가 | 10% 이상 | 20 24.1 |
| | 무응답 | 3 3.6 |
| | 없음 | 9 10.8 |
| | 1-2명 | 14 16.9 |
| | 3-5명 | 29 34.9 |
| | 6-10명 | 17 20.5 |
| | 11-20명 | 8 9.6 |
| 크리스찬이 된 지는 몇 년 | 21-30명 | 3 3.6 |
| | 30명 이상 | 2 2.4 |
| | 무응답 | 1 1.2 |
| | 1년 미만 | 2 2.4 |
| | 1년에서 2년 | 1 1.2 |
| | 3년에서 5년 | 1 1.2 |
| | 6년에서 10년 | 6 7.2 |
| 친구 중 믿지 않는 사람은 몇 명 | 11년에서 20년 | 24 28.9 |
| | 21년에서 30년 | 6 7.2 |
| | 30년 이상 | 40 48.2 |
| | 알 수 없음 | 2 2.4 |
| | 무응답 | 1 1.2 |
| | 없음 | 7 8.4 |
| | 1-2명 | 10 12.0 |
|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한 적 | 3-5명 | 24 28.9 |
| | 6-10명 | 11 13.3 |
| | 11-20명 | 13 15.7 |
| | 21-30명 | 7 8.4 |
| | 30명 이상 | 9 10.8 |
| | 무응답 | 2 2.4 |
| | 예 | 41 49.4 |
| 매일 대략 기도 시간 | 아니오 | 35 42.2 |
| | 무응답 | 7 8.4 |
| | 10분 미만 | 35 42.2 |
| | 10분에서 20분 | 24 28.9 |
| | 21분에서 30분 | 9 10.8 |
| | 31분에서 45분 | 6 7.2 |
| | 46분에서 60분 | 4 4.8 |
| 합계 | 61분에서 90분 | 2 2.4 |
| | 91분에서 120분 | 1 1.2 |
| | 120분 이상 | 2 2.4 |
| | 합계 | |

2. 변수들 간의 상관분석결과

[표 2]는 종속변수인 교회발전_성장요인과 각 독립변수들을 중심으로 상관분석을 한 결과이다. 상관분석 결과를 보면, 사역프로그램은 종속변수인 교회의 발전_성

장에 대해 $r = .559$, 교회의 발전_목표에 대해서는 $r = .621$, 교회의 발전_조직에 대해서는 $r = .811$ 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교회의 사역/프로그램이 다양할수록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교회성장, 목표, 조직에 대한 긍정적인 의식이 상승됨을 알 수 있다.

교회 분위기와 지도자_목사는 높은 정(+의 상관성($r = .850$))을 나타내고 있으며, 의례_설교는 교회 분위기, 지도자_목사와 높은 정(+의 상관성($r = .728$))을 나타내고 있다. 교회의 공동체_모임은 분위기($r = .636$), 의례_설교($r = .645$)와 높은 정(+의 상관성을 나타내고 있고, 공동체_친교는 교회분위기($r = .753$)와 높은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공동체_참여와 교회분위기는 상호간에 높은 정(+의 상관관계($r = .748$))를 나타내고 있음을 나타낸다.

사역/프로그램은 교회분위기($r = .818$)나 공동체_친교($r = .846$), 공동체_참여($r = .819$)와 높은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개인적_믿음은 공동체의 참여($r = .738$), 사역/프로그램($r = .823$), 교회분위기($r = .777$)와 높은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개인적_가치관은 사역/프로그램($r = .633$), 공동체_참여($r = .591$), 공동체_친교($r = .587$)와 높은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표 2. 변수 간 상관분석 결과-1

| | | 지도자 | | | 분위기 | 의례 | |
|----------|-----|--------|--------|--------|--------|--------|--------|
| | | 전체 | 목사 | 부서 | | 예배 | 설교 |
| 지도자 | 목사 | .450** | | | | | |
| | 부서 | .178** | .596** | | | | |
| 분위기 | | .364** | .850** | .672** | | | |
| 의례 | 예배 | .247* | .086 | .165 | .033 | | |
| | 설교 | .360** | .728** | .605** | .757** | .259* | |
| 공동체 | 모임 | .364** | .592** | .447** | .636** | .427** | .645** |
| | 친교 | .507** | .650** | .520** | .753** | .163 | .742** |
| | 참여 | .386** | .692** | .644** | .748** | .065 | .641** |
| 사역프로그램 | | .587** | .693** | .526** | .818** | .197 | .719** |
| 개인적 | 믿음 | .383** | .756** | .522** | .777** | .180 | .733** |
| | 가치관 | .379** | .535** | .476** | .629** | .022 | .499** |
| 발전 | 성장 | .267* | .381** | .212 | .294* | .303* | .458** |
| | 목표 | .395** | .330** | .206 | .321** | .133 | .396** |
| | 조직 | .401** | .724** | .498** | .760** | .104 | .665** |
| 평균(M) | | 3.384 | 14.759 | 3.605 | 3.430 | 3.409 | 3.568 |
| 표준편차(SD) | | .762 | 3.927 | 1.178 | .925 | .432 | 1.039 |

*: $p < .05$; **: $p < .01$

표 2. 변수 간 상관분석 결과-2

| | | 공동체 | | | 사역/ 프로그램 | 개인적 | | 발전 | |
|--------|----------|--------|--------|--------|-------------|--------|--------|--------|--------|
| | | 모임 | 친교 | 참여 | | 믿음 | 가치관 | 성장 | 목표 |
| 지도자 | 목사 | | | | | | | | |
| | 부서 | | | | | | | | |
| | 분위기 | | | | | | | | |
| 의례 | 예배 | | | | | | | | |
| | 설교 | | | | | | | | |
| 공동체 | 모임 | | | | | | | | |
| | 친교 | .744** | | | | | | | |
| | 참여 | .576** | .690** | | | | | | |
| 사역프로그램 | | .685** | .846** | .819** | | | | | |
| 개인적 | 믿음 | .771** | .830** | .738** | .823** | | | | |
| | 가치관 | .500** | .587** | .591** | .633** | .555** | | | |
| 발전 | 성장 | .430** | .458** | .516** | .559** | .490** | .168 | | |
| | 목표 | .452** | .518** | .606** | .621** | .515** | .284* | .563** | |
| | 조직 | .599** | .758** | .753** | .811** | .798** | .484** | .624** | .532** |
| | 평균(M) | 3.228 | 2.996 | 2.985 | 3.034 | 3.249 | 3.408 | 3.083 | 2.480 |
| | 표준편차(SD) | .574 | .982 | .895 | .614 | .706 | .678 | .609 | 1.231 |

*: $p < .05$, **: $p < .01$

즉, 교회 발전_성장/조직/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의례_예배와는 상관관계가 적으며, 사역/프로그램이나 개인적_믿음, 분위기 등이 높은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사역/프로그램이나 교회의 분위기, 공동체모임이나 친교, 참여 등이 높을수록 교회_조직 및 교회의 목표달성이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p < .05$; $p < .01$).

따라서 교회의 발전을 위해서는 다양한 사역/프로그램개발과 공동체의 친교, 참여를 통한 개인적 믿음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3. 다중 회귀분석 결과

분석결과 교회발전_성장에 대해서는 공동체_참여(beta= .619, $p < .01$) 변수가 교인들의 교회발전_성장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회발전_목표에 대해서는 공동체_참여(beta= .650) 변수가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회발전_조직에 대해서는 교회분위기(beta= .525), 공동체_친교(beta= .332), 공동체_참여(beta= .373) 변수가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p < .01$).

표 3. 다중회귀분석 결과

| 교회의 발전성장 | | | | | | |
|----------|---------|-------|--------|--------|--------|--------|
| 변수 | 비표준화 계수 | | 표준화 계수 | t | p | |
| | B | 표준오차 | beta | | | |
| (상수) | 1,440 | .687 | - | 2,094 | .042 | |
| 지도자 | 전체 | -.071 | .123 | -.094 | -.580 | .565 |
| | 부서 | -.144 | .089 | -.269 | -1,618 | .112 |
| | 지도자 | | | | | |
| 분위기 | .035 | .175 | .051 | .202 | .841 | |
| 의례 | 예배 | .337 | .219 | .230 | 1,542 | .130 |
| | 설교 | .133 | .119 | .229 | 1,115 | .271 |
| 공동체 | 모임 | .017 | .203 | .016 | .082 | .935 |
| | 친교 | .010 | .157 | .017 | .066 | .948 |
| | 참여 | .420 | .136 | .619 | 3,089 | .003** |
| 가치관 | -.181 | .135 | -.205 | -1,344 | .185 | |

Model Summary : $F=3,792(p < .001)$, $R^2= .421$,
Adjusted $R^2= .310$

| 교회의 발전목표 | | | | | | |
|----------|---------|-------|--------|-------|--------|--------|
| 변수 | 비표준화 계수 | | 표준화 계수 | t | p | |
| | B | 표준오차 | beta | | | |
| (상수) | .033 | 1,238 | | .027 | .979 | |
| 지도자 | 전체 | .161 | .224 | .103 | .717 | .477 |
| | 부서 | -.240 | .160 | -.223 | -1,498 | .141 |
| | 지도자 | | | | | |
| 분위기 | -.158 | .319 | -.111 | -.495 | .623 | |
| 의례 | 예배 | .091 | .393 | .030 | .232 | .818 |
| | 설교 | .075 | .209 | .064 | .361 | .720 |
| 공동체 | 모임 | -.094 | .371 | -.044 | -.255 | .800 |
| | 친교 | .402 | .286 | .315 | 1,405 | .167 |
| | 참여 | .897 | .247 | .650 | 3,633 | .001** |
| 가치관 | -.212 | .245 | -.118 | -.865 | .392 | |

Model Summary : $F=5,944(p < .000)$, $R^2= .527$,
Adjusted $R^2= .438$

| 교회의 발전조직 | | | | | | |
|----------|---------|-------|--------|--------|--------|--------|
| 변수 | 비표준화 계수 | | 표준화 계수 | t | p | |
| | B | 표준오차 | beta | | | |
| (상수) | .754 | .657 | | 1,147 | .257 | |
| 지도자 | 전체 | -.188 | .119 | -.154 | -1,581 | .121 |
| | 부서 | -.165 | .085 | -.196 | -1,937 | .059 |
| | 지도자 | | | | | |
| 분위기 | .584 | .169 | .525 | 3,445 | .001** | |
| 의례 | 예배 | -.010 | .208 | -.004 | -.050 | .960 |
| | 설교 | .092 | .111 | .099 | .829 | .411 |
| 공동체 | 모임 | -.122 | .197 | -.073 | -.618 | .540 |
| | 친교 | .332 | .152 | .332 | 2,182 | .034* |
| | 참여 | .403 | .131 | .373 | 3,076 | .003** |
| 가치관 | -.158 | .130 | -.112 | -1,214 | .231 | |

Model Summary : $F=19,263(p < .000)$, $R^2= .783$,
Adjusted $R^2= .743$

*: $p < .05$, **: $p < .01$

즉, 교회의 발전_성장/목표달성을 위하여 교인들의 공동체_참여가 높을수록 발전_성장/목표달성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의식하고 있으며, 교회발전_조직성에는 교회분위기가 좋을수록 공동체_친교와 공동체_참여도가 높을수록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으며,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의 크기(beta값)를 살펴보면 공동체참여(beta= .619)변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로써 본 연구의 궁극적 목적인 신앙성숙 및 교회부흥_성장/목표/조직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공동체의 친교와 공동체 참여를 높이고 교회분위기를 조성하며, 변화를 통하여 성장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평신도들은 교회지도자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보이고 있는데, 신앙성숙 및 교회의 발전을 위해서는 기독교 상담 및 치유적 공동체 경험, 소그룹 형식의 성경공부 및 스터디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IV. 결론 및 제언

상관관계 분석결과, 교회 발전성장과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교회의 예배의식과는 예상했던 것 보다 상관관계가 없었는데 이는 한국의 루터교인들이 이미 루터교 예배의식을 수용하고 이에 익숙한 상황이라 직접적인 상관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반면 사역/프로그램이나 개인적 믿음, 분위기 등이 높은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기독교 상담이나 소그룹 스터디, 벨렐 성경공부 등의 프로그램이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교회 내의 공감적 분위기, 공동체모임이나 친교 참여 등이 높을수록 교회조직 목표달성이 높게 나타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신앙성숙과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는 기독교 상담의 활성화, 다양한 사역/프로그램개발과 공동체의 친교, 참여를 통한 개인적 믿음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즉 한국의 루터교회 내의 평신도들은 교회내의 예배의식이나 규례에는 이미 익숙하고 체화되어 있으며, 독특한 예배 의식이 경건하고 좋으면서도 특별한

소견이 없으며 실제로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상담 프로그램이나 사역들. 또한 교인들 간의 소통과 친교를 현재 당면한 중요한 교회 발전의 요인으로 꼽고 있었다.

다중회귀분석의 결과, 교회의 발전성장과 목표달성을 위하여 교인들의 공동체 참여가 높을수록 발전성장과 목표달성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의식하고 있으며, 교회발전과 조직성장에는 교회분위기가 좋을수록 공동체친교와 공동체 참여도가 클수록 높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즉, 본 연구의 궁극적 목적인 신앙성숙과 교회의 발전성장, 각종 집회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분위기가 우호적이고 수용적이며, 서로를 존중하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예수님의 섬김의 모습을 따라야 함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이다.

본 연구결과에 따른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교회 내에서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공동체 참여와 상담의 필요성을 함께 연결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는 소그룹활동이 바람직하다. 소그룹활동은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될 수 있다. 하나는, 큐티 나눔이나 성경공부를 주제로 한 소그룹을 형성할 수 있다. 루터교인들은 목회자에 대한 신뢰와 존중하는 마음을 지니고 있는데 벨렐성서 등 성경에 대한 깊은 지식과 더불어 집단역동과 기독교 상담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지도자를 중심으로 큐티 나눔과 성경공부 시간을 통하여 성경말씀을 근거로 한 삶의 나눔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인다. 말씀을 근거로 한 교인들끼리의 삶의 나눔은 공동체의식을 갖게 하며 그 자체로 집단상담의 치유적 효과를 경험할 수 있다. 소그룹에서의 치유적 경험은 교회 공동체에 대한 더 깊은 애착으로 이어지게 한다. 다양한 갈등상황 속에서도 삶의 부조리는 삶의 의미와 목적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이끌며, 그러한 성찰을 통해 우리는 물리칠 수 없는 자신의 삶의 실존성을 깨닫고 다시금 삶의 부조리로 기뻐해 들어가는 삶의 용기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이다[22].

둘째로, 통일 한국의 비전을 품고 루터교 내의 각 개교회가 섬김과 대화에 관심을 가지고 각 소그룹(구역, 셀 모임 등)에서 기도 및 성경공부를 기초로 한 섬김과 대화를 실제로 훈련해 나간다면 교인들은 스스로를 공동체의 중요한 구성원으로 여김과 동시에 신앙의 실천

으로 인한 신앙성숙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셋째로, 루터 교단 내에 루터 대학이 운영되고 있는데, 대학은 목회자를 양성하는 신학과 이외에도 4차 산업사회에 필요한 상담심리학과 등 선교에 적합한 콘텐츠 학과로 이루어져 있다. 교단 내의 각 개교회와 학교가 선순환적으로 교류하여 신앙성숙과 교회성장을 이루어 갈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 참가한 00교회의 성도들은 매주 교회에 참석하여 예배 드리며, 목회자를 존경하고 서로를 배려하며, 크리스천의 직분을 잘 감당하고 있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신실한 평신도들이다. 그러나 변화하는 세상과 사회에 발맞추어 교회도 새로운 선교전략과 진도에 대한 방법을 연구하고 교회부흥에 대해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교회의 고령화에 대한 대안으로 대학 내 캠퍼스활동을 활성화 하여야 한다. 그런 의미로 기독교 상담과 소그룹 프로그램 등의 유인가에 대해 연구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본 주제에 대한 심화된 질적 연구를 위해서는 개별면접이나 초점집단 면접 등에 대한 연구 방안도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참 고 문 헌

- [1] 김옥진, “기독교상담학을 통한 영성교육의 효과,” 루터대학교 교수논문집-신학과 신앙, 제27권, pp.133-153, 2016.
- [2] 박형룡, *교의신학교회론 박형룡박사 저작전집 VI*, 기독교교육연구원, 1981.
- [3] Donald A. McGavran, 고원용역, *교회성장학*, 보이스사, 1975.
- [4] Wagner C. Peter, *Your Church Can Grow*, Regal Books, 1984.
- [5] D. A. McGavran, *Understanding Church Growth*, 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lishing, 1980.
- [6] Howard A. Snyder, 이강천 역,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생명의말씀사, 2006.
- [7] 이병철, *설교와 교회성장*, 기독교문서선교회, 2007.
- [8] 강대기, *현대사회에서 공동체는 가능한가*, 아카넷출판사, 2001.
- [9] 이지현, *개인, 공동체, 교육 II*, 교육과학사, 1997.
- [10] 이지현, *개인, 공동체, 교육 II*, 교육과학사, 1997.
- [11] 강대기, *현대사회에서 공동체는 가능한가*, 아카넷, 2001.
- [12] 김옥진, “낭만적 거짓과 소설적 진실: 에로스와 종교,” 루터대학교 교수논문집-신학과 신앙, 제26권, pp.167-192, 2015.
- [13] R. Lawrence, *A New Face For The Church*, Grand Rapids: Zondervan Publishing House, 1970.
- [14] 김옥진, “철학상담의 정체성과 그 한계: 심리상담의 관점에서,”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제18권, pp.13-32, 2009.
- [15] 김덕수, *리더십 다이아몬드*, 두란노아카데미, 2008.
- [16] 충영, 김정모, “기독교인의 교회스포츠프로그램 참여 만족도가 교회성장 기여도, 활용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과학회지, 제22권, 제5호, pp.291-302, 2013.
- [17] 오경석, “교회 노인교육프로그램으로서의 자서전쓰기 모형 개발,” 기독교교육정보, 제45권, pp.203-225, 2015.
- [18] 류은정, “마을교육공동체를 위한 지역교회의 역할,” 선교와 신학, 제44권, pp.259-288, 2018.
- [19] 심수명, “교회성장을 돕는 상담목회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한밀교회를 중심으로,” 복음과 상담, 제8권, pp.199-226, 2007.
- [20] 전석재, “소그룹중심의 전도전략,” 선교신학, 제46권, pp.273-295, 2017.
- [21] 김옥진, “옴기를 통해 본 기독교 상담에서의 하버마스 의사소통 합리성에 대한 연구,”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제22권, pp.35-55, 2011.
- [22] 김옥진, “크리스토퍼 듀랑의 부조리극과 까뮈의 부조리 소설을 통해 본 실존심리치료의 의의,” 루터대학교 교수논문집-신학과 신앙, 제18권, pp.169-193, 2007.

저 자 소 개

김 옥 진(Ock-Jin Kim)

정회원



- 1985년 2월 : 가톨릭대학교 사회학과(인문학사)
 - 1993년 2월 :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학과 석사(교육학 석사)
 - 2005년 2월 : 홍익대학교 대학원 상담심리전공 박사(교육학박사)
 - 2007년 3월 ~ 현재 : 루터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교수, 루터상담연구소장, 산업협력단장, 성윤리위원장, 교무처장, 도서관장 역임
- <관심분야> : 기독교상담, 예술상담, 상담철학